

# 광주시립미술관 '스마트폰 앱' 서비스 현장에서도 가상에서도 실감나게 본다

전시 안내 앱 이용하면  
전시의도·작품설명 해주고  
미술관 안 가도 작품 감상  
홈페이지 개편·SNS 소통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해설을 듣고 작품을 감상하면 한층 더 이해가 쉽다. 하지만 전시해설은 주로 ‘문화가 있는 날’이나 주말에 편중돼 평일 관람객들은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작품 설명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전시안내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개설 1주년을 맞은 온라인 모임 ‘밴드’도 꾸준히 지역 미술계 소식이 올라오며 활발한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옛 홈페이지는 광주 홈페이지의 하위로 구축되면서 미술 보다는 행정부서용 분위기로 운영됐다. 전시 소개, 소장품 검색 등이 있었지만 전문 자료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artmuse.gwangju.go.kr)는 미술관에서 자체 운영하며 허정음미술관, 광주시립사진전시관, G&J광주전남갤러리,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등 부속 기관 전시, 행사 내용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 소장작품·미술 도서 검색도 강화했다.

특히, 최신 IT 기술인 ‘비콘’(Beacon·블루투스)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전시안내앱이 눈에 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광주시립미술관’으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관람객들은 본관 미술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이어폰·헤드셋을 스마트폰에 꼽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스마트폰 전시안내 앱을 이용해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시 기획의도 등 전반적 내용이 나오고 작품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제작연도, 재료 등 관련 설명이 나오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시 대표 작품만 설명을 제공한다. 대상 작품은 소형 안테나 설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술관측은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또 ‘현장스캐치’란에는 전시 개막식 등 사진을 게재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한다.

앱에는 이외에도 직접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현재·지난 전시(작품 포함) 소개, 소장품 검색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대로 화면 속 풍경이 변하는 360도 VR(가상현실) 길안내, 층별 안내를 실었다.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을 저장해 볼 수 있는 ‘나

만의 갤러리’, 전시나 미술관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는 ‘미술관 산책’ 메뉴도 구성돼 있다.

본관에 설치된 조형물을 카메라로 찍으면 해설이 나오는 ‘미술관AR(증강현실)’ 메뉴도 눈길을 끈다. ‘어린왕자’(정문입구), ‘빛의 열매’(야외 마당), ‘풍선’, ‘빨간구두’, ‘변용된 달항아리’(이상 로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된다.

전시안내 앱을 이용한 전시 설명은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전시안내 앱 이용 인증샷을 미술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moakorea) 이벤트 페이지에 남기면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오픈이벤트도 진행한다.

미술관은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모임 ‘밴드’는 회원수 740명을 돌파하며 지역 미술인 교류의 장으

로 자리잡았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미술관 학예사들은 도록에 미처 실지 못한 작품·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며 전시에 대한 진밀감을 더욱 형성한다.

또 각종 행사 사진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올리며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 밴드는 이외에도 결혼, 입상 등 지역작가들이 전하는 소소한 일상도 볼거리다. 해외 전시 풍경, 전시 뒷풀이 모습, 미술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담긴 글, 추천하는 전시 등이 활발하게 올라오며 미술관을 중심으로 작가, 일반인들이 소통하고 있다.

그밖에 미술관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강좌나 전시 일정을 게재하며 SNS 홍보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2-613-71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한국 미술계 가장 영향력 큰 인물’ 홍라희 리움·호암미술관장 사퇴

홍라희(72·사진) 삼성미술관 관장이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이 전하면서 “홍라희 관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후임 등도 미정이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주변에 “참담한 심정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이근희 회장이 3년째 외병 중인 가운데 아들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감된 상황에서 관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듯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내인 홍 관장은 경기여고,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출



신으로 시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경기도 용인에 세운 호암미술관 관장직에 1995년 1월 취임했다.

홍 관장은 2004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하면서 두 미술관의 관장직을 맡았다. 그는 재력과 인맥,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오랫동안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큰 인물로 꼽혀왔다. 홍 관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사태의 여파로 리움 및 호암미술관 관장직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했다가 3년 만인 2011년 3월 복귀했다. 리움 미술관에서는 홍 관장의 동생인 홍라영씨가 총괄부관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 목요일린국악한마당 무진풍류회 초청공연 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는 오는 9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제523회 목요일린국악한마당 ‘무진풍류회’(사진) 초청 공연을 갖는다.

‘남만적인 삶 풍류에 젖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남성적인 선율의 ‘강정렬류 가야금 병창’으로 문을 연다. 이어 서편제 보성소리 ‘적벽가’와 명창 김소희 선생에서 유래한 민중제 ‘춘향가’

한대목을 들려주며 전라도 진도 북놀이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양태옥류 진도 북춤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한다. 마지막 레퍼토리는 남도 민요 ‘흥타령’과 ‘진도 아리랑’으로 관객들과 함께 하는 무대다.

배영배, 김정숙, 박지현, 기세규, 이복순, 조철희, 양경철, 고일남, 한지연, 장영섭 등이 출연한다. 전시 초대. 문의 062-350-4557. /김미진기자 mekim@

## 광주시민인문학 봄 강좌 ... 내달 1일까지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이 봄을 맞아 새 강좌를 개설한다. 광주시민인문학은 내달 1일까지 4주에 걸쳐 전년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41기 정기 강좌를 개최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한국문학 시간으로 김정우 박사가 ‘현대시 어떻게 읽을까-인문학적 시 읽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동양철학 시간으로 우동필교수가 ‘심이연기(緣起)와 서양철학의 교집합’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요일에는 ‘몸의 철학, 메트로 폰트’ 각각의

현상학’을 주제로 철학 이론스터디가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여성 고갈되는 방식-성에 대한 메시지 ‘성적 대상’, ‘고전음악과 진화하기-슈베르트 시리즈’를 주제로 토크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 열리는 SEMI강좌에서는 각각 ‘무비토크-중국영화 특별전’과 ‘인문택시-신기자의 여행 수첩’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 회원 3만원. ‘내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비가 된 할머니들의 원혼...조현옥 시인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펴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뼈아픈 역사다. 국내외 해외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룬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현옥 시인이 펴낸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릿츠북)은 시인의 시대적 책임이

무엇인가 세상에 던지는 화두인 동시에 대답이다.

시인은 “중학교 때 어느 잡지에서 보았던 일본 위안부 문제가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있었다”며 “나비가 된 할머니들의 원혼들이 당당하게 날개짓을 하는 날을 그려보며 시집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작품집에는 시인이 통한의 역사를 접

하면서 느낀 충격과 분노, 슬픔이 담겨 있다. 특히 작품 가운데에는 지난해 5월 저자가 ‘광주평화나비소모임’ 대표로 해남의 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고 공점영 할머니를 찾아뵙고 쓴 시가 수록돼 있다. 또한 담양의 광애남(94) 할머니를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면서 쓴 시도 담겨 있다.

조 시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이 문제 해



결을 위해 투쟁하는 분들에게 시집을 바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시인은 1992년 ‘문학공간’을 통해 데뷔했으며 시집 ‘무등산 가는 길’, ‘사월의 비가’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싸고, 투자, 가치있는 물건, 사정상 매매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확인하고 전화요망

###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외 4필지 (147-11, 15번지 209, 209-1번지)
- 대지 및 농지 518평, 1층 주거지역
- 31사단 군부대 지나서 삼일 APT 옆
- APT 신축예정 후보지 1순위
- 단기투자 가치 최고
- 공동 지분투자 가능
- 매매 - 10억 (평당20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